발행인 박 술 음
주 간 허 세 욱
편집장 권 영 욱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우편번호 131
TEL 60 3751(직통)
서울특별시 중대구구 이문동270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 우편물 인가)
(허가 번호 제다253호)

1971년 9월15일 발행
제 156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취업(就業)추천의 제도화

사설

2학기가 시작되면서 4학년 학생들에게는 취업진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졸업상반 그들인데 취직이 직장을 위한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추리나라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그나마도 힘든 문제가 아닙수없다.

더구나 몇해전부터 각 공장기관이나 기업체는 심한 불황으로 허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움되는 학생들을 위한 직장의 문은 더욱 좁아지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대학의 대의적인 위치나, 교문을 나선 선배들들의 학심한 「이미지」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는 귀요로 하는 학생을 앞선해 주도록 추천을 학교당국에 의뢰해오고 있다. 그리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보바도 추천에의한 인선(人選)이보다 효과적이고 추수한 사람을 택할수 있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스카우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추천을 의뢰해 오는 측의 주미에맞는 훌륭한 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해 주느냐는 것이다. 물리는바에 의하면 국내의 모한공 교사는 전년도 학교당국의 무능인한 추천때문에 크게 실망을 받나머지 관년에는에 추천의뢰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외사에 적응두고있는 많은 공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 분노를 아기시킨다는 것이다.

추리는 그외사에 추천을 받아간 8명의 취업생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또 어떠한 과정으로 추천되었는지 확심히 모르겠으나 적어도 말해 교사 간 만족시킬만한 우수한 학생만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언할수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스러운 추천이 학교로 표출되지않는 또다른 교사가 있음 것으로 가정할수도 있으며 반에 일이라도 있으려 면에 일어나도 추천과정에서 개인적인 추천기준이 작용했다면 앞으로 취업하게 될 제학생들을 위해서도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학교의 소관부처측에서는 추천을 의뢰해 오는 회사측이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기준에 맞는 학생을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것으로써 위리는 바화같은 유감스러운 사태가 해 말생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문에 외부의 추천의뢰를 전담하는 담시를 제도적으로 설치할 것과 본대학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않는 입체한 추천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하고 싶다. 현재 학생처와 삼각신로 이림처이 있는 추천기구를 입림과해야할 것이며 해당학과장 앞으로의 추천의뢰를 제의하고는 이입원과원 부서가 학생 추천사무를 전담하고 해당학과장의 추천도 어느정도 전담부처의 기준을 적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 추천기준도 재학시의 성적, 어학능력, 신부 및 학생활동상황등으로 입체의 구분해서 천재적소에 알맞는 학생을 추천할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한사람의 졸업생이 교문을 나선다는것은 모교의 이미지를 사회에심는 것이며 그 사람의 사회활동은 곧 모교의 위신내지는 명예와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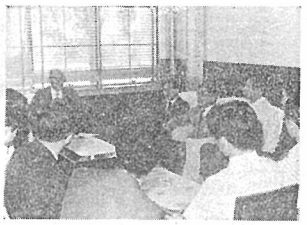
단 한명의 졸업생이라도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뿌려온 직장에 적응할수 없을때 학교와 전체재학생에 미치는 영향은 상승(相乘)적으로 작용할 수도있다. 취업시즌을 맞아 학생추천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거듭 바라고 싶다.

타성화된 학생회의 활동 시정토록

신임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혀

체육행사의 일원화,서강대학과 친선교류에 지원

각 학술분야 특강 항상 개최할 준비되어 있어



<박학장님과의 간담회광경>

○…신임 학생회장단이 출범을시작, 그 기치를 세…○
○…웠다. 신학기의 시작과 함께 연례행사로 거행…○
○…되어온 학생회간장의 출범은 참상 과대한 의…○
○…욕이 앞서왔었다. 이번 회장단은 지난 8일 취…○
○…임, 그 첫단계로 박술음 학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으며 1년간의새로운 설계과 함께 본격도…○
○…에들어섰다. …○

신임 학생회장단은 지난 11일 학장실에 신임후 첫학장간담회를 가졌다.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이자리에는 꼬부, 학생, 사무처장이 배석하였는데 박술음 학장은 「회장단은 스스로의 활동방향을한미래으로 설정할수 있어야할것」이라고 언급, 바람직한회장단의 활동은 시정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새습 보조비, 아카데미난의 한리적 운영과 특히 중래의 산만적인 세수활동을 지양하고 일림화된세수활동을 개최할것과 서강대학과의 친선 경기도 구상중임을 보고했다.

또한 여학생회에서 건의한 체육 시간을 이용한 3, 4학년 여학생을 위한 교양강좌의 개최도 효과적인 방법을 협의으며 박학장은 각학술 분야의 특강도 항상 개최할 준비가 되었음을 비치며 학생들의 참여있는 학구열을 촉구하였다.

여학생회실 이전

여학생회는 14일부터 이제까지 대의원회와 같이 사용하던 여학생회실을 본관 321호 외국어학부장실로 옮겨쓰고있다.

한편 여학생회는 9월중의 명사로 Flower Design강좌, 화장품공장 견학을 통한 미용강좌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앞으로여학생회명사가사치적인 면을 지양하고 진정한 여학생의 교양을위한 명사가 되어야할것이다.

대의원회 정기총회

대의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법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날의 안건은 예산및산심의및 부의장선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대의원회 정기총회는 연례적인 대의원회와 학생사회만 그치지말고 전학생을대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좀더 참신한 예선심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극부총연습

예술축전에대비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연극부문에 참가하게될 본 대학연극부는 루트로 피츠작 「미나 만딸려나」라는 작품으로 지난 8월부터계속연습중이다.

이번 축전 연극부문 예선은 14, 15양일간 중앙대극장에서 있을 예정이고 본선은 25일부터 28일까지 국민예시가집 것이라고 한다. 한편연습은 김상덕(법·3) 군이맡고 있다.

신·구 학생회장단 이·취임식

8일 별관 회의실에서

지난 8일 오후 3시 학생회 회장단의 이취임식이 오관된 학생처장을 비롯, 교수 서강대표및 학생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법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박재창 전학생회장의 퇴임사가있은 후 이어 노승제 신임학생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는데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느때와 보다도 어느 때의 학생회장단보다 특별을 관중을 전개 미숙 않음하고 회의적으로 임할것을 다짐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모의 올림픽 재정비, 아카데미의 남명사확대, 써클보조 강화, 취직특강, 자율학경비의 내용공개등을 애기했고 또한 대화적으로 서강대와의 문화교류 및 친선경기등의 실제들을구상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임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임원명단은다음과같다.

▲총학생회 회장(노승제·4·3) 부회장(최영신·독3) 기획부장(전영인·서3) 총무부장(김종하·이3) 문화부장(전중현·중3) 심의부장(고병호·바인3) 체육부장(김지협·임3) 섭외부장(장기실·서3)

▲여학생회 회장(김재순·서3) 총무 부장(고혜선·서3) 문화부장(이일희·포3) 심의부장(김준여·독교3) 공보부장(이근영·영3) 미화부장(윤선숙·바3)

벨기대사내방

도서 기증해

지난 8일 오전 11시 학장신에서 벨기대사관의 기증도서 전달식이 있었다.

주한 벨기대사 Trine씨가 직접전달한 이 기증도서는 장본 65권, 연구자료30권등모두95권이다.

한편 이자리에 같이 참석한 주한 화란대사관 문정관은 화란정부도 백년10만원상당의 도서를 기증하겠다고말했다.

천리 대학생 본대학친선방문

지난 8월17일 본대학과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천리대학생 30여명이 친선방문차 본 대학을 다녀갔다.

한국어과가 소속되어 있는 천리대학에서 한국어과, 학생을 중심으로 방문한 이들은 한·일대학생의 친선및 문화교류에 대육된바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5시간 동안 본대학을 두루 살펴보았으며 본대학인어과에서 그 안내를맡았다.

무료공개강좌

서반아어보급위해

서반아어과 어문학회는 서반아어의 보급을 위해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지난8일부터 종무로 2가에 있는 한국 시청각 문화교육문화원에서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9월30일까지 계속되는 이강좌의 강사는 조영길, 장영민, 송용제군등 서어과 3년생들이며 시간은 7시부터 8시반 까지이다.

중국 보인대학과 자매결연

김이사장 자유중국 방문

그동안 부진했던 본대학진공 외국어 대학과 대학과의 자매결연이 앞으로 활기띠게 고 심질원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

지난달 25일 김홍배이사장은 고수교회가 같는 위 거남 뷰부터 추천되어 왔던자유중국 타이페이에있는 輔仁대학과의 자매결연,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김이사장은 이자리에서 솔선중범

교수 논문

THOMAS HARDY와 그의 인도주의적 이상주의

박 명 석
<영어과 조교수>

여기서 논인은 하디를 로렌스나 플로베르와 같이 저한 의미의 현대작가로서 「하디」가 가지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고 최반비국이나 셰익스피어 비극속에서 우리가는는 비극적 가치 또는 비극정신을 하디의 비극작품속에서 찾아 보아 보고 있느냐 라는 점을 생각하여보기로 한다. 하디 역시 현대작가이노누구보다도 진보된 현대과학적 정신의 영향을 받았지마는 그것을 플로베르나 보들레스와 같이 리얼한 점에서 찾지 못하고 그의 비극적 정신을 그의 소설이 쓰여지기 이전 최만의 비극시인이나 셰익스피어서 찾았던 것이다. 하디의 비극작품속에 담겨져있는 비극적 정신 또는 가치를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최만 비극과 셰익스피어의 비극정신을 이야기 함으로써 위대한 비극작품속에 담겨져있는 항구적 의의를 찾아보고 탐을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른 비극정신의 추이와 비극작가로서의 하디가 갖는 위치를 인정하면서 시대적 변천에 따르는 제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반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느끼는 비극적감동하디의 비극작품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밝하고자 한다.

최반사람은 우주와 신에 대하여 깊은 관심가지고 이것을과 인간사이에서 헤어지는 운명을 쉬급하게고 했다. 최만 시인은 인간의 내부로부터나 또는 외부로부터 인간과 자괴를 등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악이라 생각했으며 인간이 악과 투쟁하므로 여기에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르게되고 그 고통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좋았던 것을 빼앗게되었던 것이다. 즉 고통을 통해서 투덩인가 배움으로서인간은 복국적 가치를 찾게 되고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꿈도 꾸어보지못할 정도의 높은 인간 수준에 달하게 되는 것을우리는최만비극에서보게된다.

이러한 비극적 요소들이 최만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내려오는 비극정신의 핵심 불가결한 특질이 되었던것이다. 인간이 모든 외부적 세력에 도전하고 투쟁하는 것은 최만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내려오는 비극정신의 핵심 불가결한 특질이 되었던것이다. 즉절대 만능이며 인간이 모든 외부적 세력에도 굴복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막대한 신념을 최생하면서까지 셰스피어 비극이 도덕적질서를 구현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악이 이도덕적질서를 어지럽힘과 인간사는 선과악 사이에서투쟁하며 악때한 선을 최생하면서도 이악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셰스피어의 작품 읽고 절망적으로 느끼지 않는것은하디 작품 주인이 인간과 운명의 희생이 되는것이는 부정하고 19세기 중엽부터 낙관주의에 도전해서 기독교신앙의 위안은 저버리고 현대생활의 책임은 진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치중하던 고대의 전통에서 현대인은 중경의 힘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고 우리가 최반비극에서 보는 운명은 사회적 또는 자연적인 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19세기 중엽주의적 낙관주의에 도전해서 기독교신앙의 위안은 저버리고 현대생활의 책임은 진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치중하던 고대의 전통에서 현대인은 중경의 힘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고 우리가 최반비극에서 보는 운명은 사회적 또는 자연적인 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19세기 중엽주의적 낙관주의에 도전해서 기독교신앙의 위안은 저버리고 현대생활의 책임은 진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비극적인 정신은 문주기 위하여 유명이나 마어 또는 우발적 사건들을 작에 들어 들였을 뿐이다.

셰스피어의 비극적 주인공들은 전부 그렌트스케일 위에 바탕을 둠으로써 그 떠한 인물들이 감지기 본 괴할 뿐에는 전범한 인간들이 불피할 때보다 더욱 더 현인과 경악과 존경심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킨다.

셰스피어의 비극적 주인공들은 반드시 선할 필요도 없고 악할 필요도 없는것 같다. 물론 햄리트나 오셀로의 죽음이 빅에드의 죽음보다 더욱 극적이고 빅에드의 죽음이 리차드 3세의 죽음보다도 더욱 더 극적이기는 하지만는 다만 주인공의 선량한 힘이 나쁜 중기에 소멸되든지 또는 좋은 중기에서 소멸되든지 간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간 최지의 힘이 모든 외부적 인 세력에도 불구하고 끈질한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셰스피어 의 비극적 인물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가서는 그들의 범지생각한 것과는 정반대 정반대가 되는 불행이 생기는 것이 셰스피어 비극에서 어떨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할 것은 이러한 것은 어떠한 운명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막대한 선을 최생하면서까지 셰스피어 비극이 도덕적질서를 구현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악이 이도덕적질서를 어지럽힘과 인간사는 선과악 사이에서투쟁하며 악때한 선을 최생하면서도 이악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셰스피어의 작품 읽고 절망적으로 느끼지 않는것은하디 작품 주인이 인간과 운명의 희생이 되는것이는 부정하고 19세기 중엽부터 낙관주의에 도전해서 기독교신앙의 위안은 저버리고 현대생활의 책임은 진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치중하던 고대의 전통에서 현대인은 중경의 힘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고 우리가 최반비극에서 보는 운명은 사회적 또는 자연적인 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19세기 중엽주의적 낙관주의에 도전해서 기독교신앙의 위안은 저버리고 현대생활의 책임은 진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치중하던 고대의 전통에서 현대인은 중경의 힘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고 우리가 최반비극에서 보는 운명은 사회적 또는 자연적인 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19세기 중엽주의적 낙관주의에 도전해서 기독교신앙의 위안은 저버리고 현대생활의 책임은 진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대 비극의 Heroictradon은 이미 현대생활에서 상아졌다. 인튼콘의 전달만은 Emma Bovary의 전달만으로 뚜그려 두었다. 현대 비가들은 고대의 절정감이 갖는 Vital gaith를 잃어버렸다. 고대의 비극에서는 초자연적 존재가 인간의 의연적인 행, 불행을 좌우하기는 하였지마는 그 존재가 좀 평하고 공평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최만사람들은 여기에서 인간과 정악간 카타르시스라는 요소라도 찾은 수 있었지마는 하디와 같은 현대의 비극작가는 인간의 수난의 배후에 어떤 총명한 초자연적인 힘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힘의 섭리은 독특한 것이어서 인간이 무의지한 미지연속에서 아무리 공부힘쳐 보아야 인간의 존중한 의도는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을 우리는는다.

크르즈는 현대인은 비극을 쓸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힘비비극에서는 고대비극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경건심, 또는 위대한 인물들의 존재나 인간의 존엄성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경건심이 부족한 하디가 어떻게 비극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것일가.

이것은 하디가 주주대의 저세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가졌지마는 인간에대해서는 어떤 집에서 낙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디의 어두운 비관은 이야기는 바사람고 고속한연민의 정과 관대함과 희생적 협심으로 가득차 있음을 봄니다.

하디의 아무리 부서진 배경이라도 그가 가장 비천한 인물들을 중점적인 태도로서 다룬데 연민의 정에 의해서 가리워진다. 비천한 인물들이 바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간애와 피로한 영혼에서 흘러나서 사랑장으로 끌려갈때 하는말들은 인간이 무자비한 배자연과 운명에 절망하지않고 싸워나가는데 용기와 힘을 불어주는 말들이리라. 이것을 좀사 셰스피어에서 「햄스릿」의 죽음을 보고 Dame Quickly의 말과 같이 우리의 심자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말들이다.

하디의 인간에 대한 정은 타르작가의 추동을 불허하는 시적 (詩) 인것으로 가득차있음을 우리는 본다. 「엥커드」가 물에빠져 죽음려고 시냇물속을 들어가 보며 젊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물위에 떠내려가는것을 보다든지 에리자베드 제인의 결혼을 축하하기「행커드」가보낸 정혼선물이어 침부 받검필때 「a newbird-cage, shrouded in newspaper, auxat the bottom of the cage a little ball of feathers—the dead body of a goldfinch」라고 하디의 입술 동해서 말할때 그의 시적인 힘은 주리의 연민이나 장정을 더욱더불러일으키게 되는것이다. 불러교수는 이 토운헨지」에서 놓들려서 사랑장으로 끌려갈때 하는말들은 인간이 무자비한 배자연과 운명에 절망하지않고 싸워나가는데 용기와 힘을 불어주는 말들이리라. 이것을 좀사 셰스피어에서 「햄스릿」의 죽음을 보고 러한 하디의 연민의정은 인간에 대한 그의 깊은 존엄성과 존경심에서 온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말 하디의 작품에서 인간을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빛이란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곧 하디가 인간의 불행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데 그치지않고 힘겹는 인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데 그치지않고 힘겹는 인간을 나아가서 인간의 미덕을 확인하려고 했기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하디의 작품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인간정신 불수 있는것이다. 그리고자 기에게 불리한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왔을때에도 조금도 굽히지않고 이것을을 잡히 받아들이며 「유스타타아」의 승자는 캐배잡보다는 오히려 불절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정신력 승리를 말해 주는 것이리라.

「캐스터 브릿지 시장 (市長)」에서 말의 결혼식을 면서도 조금도 방황하거나 놀란 기색이없이 「They have come」…, 「Ansel, I am almost glad—Yes, glad…」 「I am ready」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형사들에게로 갑래 두리는 어떠한 절망 갑보다는 의부적 관경에대한 정신적승리라 거둔 인간상은 헛불수있을것이다.

또 The Return of the Native에서 효파로운 도시생활을 등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심평한 코리어 조그만도, 실망하거나 불만말이없이 그곳에나가서 가장 전한 일을하면서 노력하지 부끄수있는 것을 보며 캐배한인간상이 아니라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정신적 승리를 거둔 거록한 인간상을 볼수 있는것이다. 그리고자 기에게 불리한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왔을때에도 조금도 굽히지않고 이것을을 잡히 받아들이며 「유스타타아」의 승자는 캐배잡보다는 오히려 불절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정신력 승리를 말해 주는 것이리라.

「캐스터 브릿지 시장 (市長)」에서 경찰에 포위돌 받음것을 알

대학자주화 ㅁ 행동적 선언의 의미

『금년하는 국제정세와 우리 현실에서 오늘날 만큼 대학의 사명과 존재가치가 국가와 민족에게 절대한기 때문 찾게 하는 때도 없을 것이며 이 기회에 보다하는 길은 대학이 자주적으로 오로지 진리탐구와 지식의 창조를 통해 기여한다고 하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대학의 자주, 자율화, 교수들에게는 교수다운 기본적생활의 보장및 연구조건의보장이 절대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달 23일 서울대학교 교수 협의회에서 대학의 자주 (自主) 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것을요구하고 채택한 자율화 건의서 중의 일부내용이다.

교수들은 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우리교수들은 이상과 같은 시명과 책임을 통절히 자각하고 우리가 연구, 교육, 지도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 책임을 지기위한 자유와권리를 방유하고 정신적, 지적 힘의 기반을 구축하여야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믿기는 바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교수들의 의견이 명쾌으로 표현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듯 개념적인요구가 그렇만 당국에 의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적할수 있다.

대학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것은 어제 오늘에있었던 일이 아니며 언젠가는 해결되어야할 문제로돈 제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최나하면 오늘의 대학의 존재가치는 대학의 문제가 곧 국가의 문제요, 민족의 문제와 동일시 되기때문에 교수들이 주장하는 자주화 선언이 결코 기인게 리경되어서는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주개선, 연구여건의 조성및 대학의 자주화등을 요구했으나 가장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어야할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시인했듯이 학원사찰한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고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마음놓고 강의를 할수없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점차나 경사의 기본적 자유마저도 만지할수 없는 심정이되고 말았다.

사실 사립대학의 자율화는 비 양심적인 대학 운장을 정하고 있어 재단측의 입김이 학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방법 인지 또는 나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단과 대학 운영리합으로써 순수한 학문연구 기관으로의 보다 나은 정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가 하는 점이다.

사실 사립대학의 자율화는 비 양심적인 대학 운영가의 태도에 따라 모순점을 표출할 수도 있다는 주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사립 대학에 규제가 제거되었을때 마치 학사체조경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문제점 없는 사립 대학에는 중요히 대두된다.

교수의 직무문제와 정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문제는 대학이 학문기관으로의 지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경제 성장 율의 계수를 지탱하는 정부 측도 교수들의 처우가 그들의 제자들이 받는 봉급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입부대학은 이사장이 총장을 겸하고 있어 재단측의 입김이 학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방법 인지 또는 나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단과 대학 운영리합으로써 순수한 학문연구 기관으로의 보다 나은 정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가 하는 점이다.

사실 사립대학의 자율화는 비 양심적인 대학 운장을 정하고 있어 재단측의 입김이 학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방법 인지 또는 나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단과 대학 운영리합으로써 순수한 학문연구 기관으로의 보다 나은 정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가 하는 점이다.

사실 사립대학의 자율화는 비 양심적인 대학 운

대학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
고전적인 대학의 위신과 자주화는 반드시 이룩되어야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또 연구실 위해 연구비및 참고 서적 구입비를 충분히 지급 한다는 것이 점에 실기능하지는 않을것이다.

도서관 시설만 하더라도 도서의 절대 량이 부족한 형편이고 학생 후생시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또 연구실 위해 연구비및 참고 서적 구입비를 충분히 지급 한다는 것이 점에 실기능하지는 않을것이다.

도서관 시설만 하더라도 도서의 절대 량이 부족한 형편이고 학생 후생시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입수록 학생 복지 시설보다는 부동산을 매입 함과 증가 건물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기회에 정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 대학의 경우는 정부의 무전심, 사립 대학의 경우는 학교를 위한 재무자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과같은 사태가 일어났지도 모른다.

[유나비시티] 안 원래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데서 발단되어 대학으로 발전한 것이며 「프로테스탄 [컨테스] 와 같은 의미로 17~8세기에는 성직자 뿐 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띄고있었던 것이 오늘의 교수로 된 것이다.

이제 교수 들이 대학의 자주화, 저주개선, 학구분위기의 조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대학이 타락함에 원인을 찾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결코 성역 (聖域) 으로 가져는 바라지 않더라도 고전적인 의미의 대학의 위신과 명예를 되찾을 때가 되지 않을가?

대학은 어느 일 개인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도 아니다.

대학은 바로 전 민족의 것이며 대학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때 국가와 민족이 발전 하는 것이다.

하기봉사활동을 마치고

—행정학과 3년 이 종 산

도시와 농촌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농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며 지역사회개발의 역량에 참가키로하여 동학생회 주관으로 서울대합창사물동을 개최한 것이 중남 서천군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전방지역으로 장소를 옮기지않을수 없었으며, 이로인해서 대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독학생회 단독으로 학교를 출발, 연천고속정장의 안내를 받아 지역을 선정받았다.

그것의 주위환경은 절력지구이어서 곳곳마다 사격장이 많았고 주민들은 다른곳으로부터 이주하여 사는사람이 많았기때문에 단합이 어려웠고사격장으로부터 포탄적집을 주워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이 많은지역이었다.

처음에는 사격장의 대포소리를 듣을때마다 대원들은 방황하는 표정이었으나 주민들은 주장된 설위기에 단련이 굳힘정강았으며, 교육장의 말씀에 의하면 교육대학을 갖나와 그곳으로 발령을 받은 국민학교선생은 처음 전방지역으로 발령받고 슬프가는 도중 사저장의 포성소리를 듣고는 그곳 교육청에서 도착 명받고 울어 모두 새벽손 하는 에피소드도 있는 것이다.

매부분 전방지역은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라고하는데 그곳은 전혀 문화의혜택을 받지못했고 마을사람이 모임수 있는 시설이나 4H등의 조직체도 없었다.

그때서 먼저 시작한것이 마을회장 삼곡이었는데 모때와 자같은 한탄장가지가서 날라와 했기때문에 집이없고 삼비밭집이어서 힘에 거웠다.

특히 폭양빛 속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우리대원들을 보고 답감게 여기지않던 사람들도 도와주는이가 많았으며 오이나 호박등 야채를 메일 갖다주어 송박하고도 드거운 인정의 롯을 피워주기도 했다.

욱기거롯에 있어서 보람은 컸되어있는 편이었고, 아프에의한 농업교육도 결원 갖았고나 취업활동인 소득사업은 짧곳이 너무많았으며 외양간은 집과 붙어있어서 냄새가 풍겨 개선하여야 집집이마고 생각했다. 특히 그곳은 사람이 살지않는 집이 많았는데, 대부분 쓰러질듯한 느낌이어서 외관상 보기가 나쁘고 위기가 요청되었다.

낮에는 우리라 속에서도 서로등고 봉사하는 협동정신을 통해 피곤한줄 몰랐으나 밤이되어 시원한 대기속에 휴식을 취할 때면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지가 는듯한 서늘함을느꼈고, 첫날밤을 모기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일지녀에마다 전기없는 암흑의 암자라을과 문명의고마움을 느꼈으나 한쪽한 시원의밤은 그런데로 고요와 정적속에서 친고의 명상에 잠기는 정숙의 밤이기도했고 낮의 뜨거운 태양속에 말홀리던 우리들은 서려주는 밤이기도 했다.

그토록 거칠고 소란하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새상도 포근히잠든 고요속에 을 의식하며 사는사람이 적은 이시대에 서로등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정경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다. 그토록 우리는 마음이 풀아졌고 각박해졌으며 메마른 사상이 계속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번 활동기간중에서 순박하고 부지런한 농촌의 할아버지들로 부터 큰 교훈을 얻었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상아탑속에서 쉴터리 박사학위를 이마에 붙이고 권위를 외람되게 하는 그런 비천한 인간보다도 어떻게살어 사는 무지하고 고맙고 인정이지만 가난하고 부지런하고 순박한 촌로의 겉고 주름진 이마에서 풍기는 고맙고도 숨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교훈이 되었다.

아니 호박관 숭용차속에서 이 아부시게를 내보이면서 정치며 역국을 논하는 우리정토의 정치가들 보다는 말없이 일하는 순박한 이들에게서 여국심을 느끼며 무엇인가 확실치 않은 경의감에 고개가 숙여지는것이다.

마을회당의 완성과 더불어 게단, 국기게양대, 게시판, 공동우물이 완성되었을 때 대원들과 지도교수님의 말흡리보탑도 있었지만 기뻐했던사람은 할아버지들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흥아서 덩실덩실 춤추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전방지역에서, 즐거웠을 수없는 경화롭고 즐거운모습이었다.

완성된 회당앞에서 피리를 불며 꽹과리를 치고 빗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농촌속에서…우리는 거기에서 진경 우리민족의 순박하고 진실된모습을 눈으로 체득했으며 아직도 우리의농촌은 도시와는 반대로 공업국의 곰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등 급기론조국근대화를 의연하고 무지와 심외와 가난만이 생활의 전부인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대원들은 고된작업에 종종들어가는 아픔을 겪기도했고 사저장에서부터 들리는 포성의 위압감과 익숙치못한 생활에 괴로워했지만 그가운데에서도 모두가 뜻있고 값있는일에 충실하는것이 자신을위한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다는 보람을 느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하는 겸등의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농촌생활과 순박한 농촌의 인간을 배웠으며 농촌사회가 무엇을 필요로하는가를 깨달았다.

회당건립,근로청년회의 발족은 큰 수확

<마을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봉사대원>

대학방송의 참된 인식 필요

—F·B·S 확장에 부쳐—

이 윤 주

현대와 같이 사회가 복잡화하고 기계화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현실사회에서 우리 생활 깊숙히 침투하여 삭막한 사회를 윤화시키고 발랄한 기개 분명 속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활력소 역할을 하는것이 매스 미디어 중에 전파 미디어인 방송이다. 이런 방송이 학원내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10여년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녔을뿐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때, 매부분의 학교에서 교내방송국을 찾아볼 수 있을만큼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부시못할 존재로 등장하였으나 타른 미디어에 비해 부진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신문잡을 미디어는 물자로 남는 반면, 방송은 곧고 흘러보냄다는 사실 때문인지 모르겠다.

<시설면>—시설면을 살펴볼때에 먼저 교육 방송국,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등 몇몇 방송국들만 FM (주파수변조) 방송을 할뿐, 매부분의 대학 방송국들은 유선방송을 하고 있어 서비스 에리어(방송청취가능지역) 가 제한되어 주로 교내 전달을 하고 있고 무선방송인 경우도 상용주파수를 넘고 있지 않아서 방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대두기 몇몇 대학은 이 방송기자는 존재하나, 심지로는 아나운서나 프로듀서가 겸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양방송과 음악방송을살펴볼때, 대학 방송이라는특필과 요약성으로 농도가집은 웹페비전이 대중의 마음보금으로 밝미암아, 기성방송국의 음악방송과 강요하는 주제에 따라서, 교양방송 보다는 음악방송에 비중을 더 주고 있는것은 피할수 없는 사실이다. 매체로 그비율은 6:4 혹은 7:3의 비율로 나누어지며 음악방송의 내용은 크라식 관송 가곡 국악등인데 매부분의 대학에서학교측의 부양한 간섭으로라 송보다는 크라식에 비중을 더 주고 있으며, 가곡로란 심의 대상이되고 있으나학의 빈곤을 넋어나지 못하고있고 국악도 약간의 중미를 보이고 있기는하다. 그러나 특기 할만한 사실은 대학방송에 Tabu로 되어 있는국내유행곡이학생들의 요구에따라 정선에 의해서 점차 학생들 틈에침투 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학생들은 현소적인 음악 방송보다는보다 폭넓은 음악 방송을원하고 있다고 보셔된다.

<문제점과 대책>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대책을알아보면 1 예산 부족 2 자율적활동 3 무선방송 실시 4 신문사와의 동등한 대우 요구 5 자립항상 6 시설보완 7 중계방송실시 등인데,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며, 자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반감을갖고 있다. 또한 자립항상면에서는 각 대학마다 하계수련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성 방송국이 방송청년 대회 (TBC : 대학방송청년 대회 DBS전국 학생 방송 작품합평대회) 를 매년 열므로써 대학 방송인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마련하고 있으나,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학생회 대변인으로서 캠퍼스보도와 정서함양, 매학생들의 권리와 사명을 신장시키는데 커다란 원동력주며 대학방송인회사기자하를 조장하는 만큼학교 발족의 부양한 간섭이 배제 되어야만 하고, 대학방송에 대한 참된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당국의 부당간섭배제와 대학방송의 참된 인식 필요

輔仁대학 소개

이번 본매학과 자매결연을 맺은타이페이의 輔仁대학은 1925년 북경에서캐톨릭계의 종합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대만에서 복교한 것은 10년때. 현재 이사장은 장개석총통의 부인인 송미령여사로 되어있으며총장은 위렌 (于斌) 추기경이다. 의국어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지향하고있는 輔仁대학은 대만유수의 사립대학중의 하나로 삼려지고있으며 현재의 학생수는 5,000명, 의 국인 전문교수만 74명이고 본국교수가1,200여명이다. 타이페이시에 있는캠퍼스는 몇발을 넓가주어 공원화했으며 넓어 기숙사가 있는데 현재는 학생은전부 기숙사를 이용할수 있으며 방하나에 2~4명이 기거한다. 캐톨릭사상의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輔仁대학의 특기할점은 도서관이 인문, 사회과학및 이공계통의 3개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서고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名画会의 対話 시리즈

〈영화다이어로그 중심의 영한대역〉

❶ PATTON 패튼大戦車軍団
❷ THE GRADUATE 卒業
❸ THE ADVENTURERS 冒険者 (상영예정)

● 본 시리즈는 당신의 영화감상을 자막중심에서 Hearing중심으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입니다
● 본 시리즈는 명화내지 문제 작만을 엄선하여 매월 출간하고 있읍니다

도서출판 文星社 TEL 27-0094

※ 구내서점 및 시내 각서점에서 절찬판매중

겨레여!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20세기의 제갈량」키신저의
北京을 향한 布石은?
—解氷을 위한 美国의 決断—
全国書店에서 絶讃裡에 発売中!
徐헨리 A키신저 正剛 訳著
キシンジャー
キシンジャー
キシンジャー

심연(深淵)

원작·야 신

본국 아신(雅弦)의 중국 원작 「심연(深淵)」을 그의 대표작 한 편으로 번역하여 본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 작품은 중국 현대문학사에 있어 현대인의 의식을 최나라하게 부각시킨 작품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작품은 중국의 문단에서 비평한 것으로 중국 유일의 20년 역사의 중견 이발만큼 무게를 지닌다할 수 있다. <역자주>

작자 아신(雅弦)은 젊다. 수수께끼 같은 이력을 가진 그는 현재 중국 대륙에 있는 것 같다. 그의 작품은 주로 「시대의 문학」 「광장」 「시대의 파가」 「광장」 등에서 본 작품을 그의 대표작 한 편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현대인의 의식을 최나라하게 부각시킨 중국의 문학계에 유일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20년 역사의 중견 이발만큼 무게를 지닐 수 있다. <역자주>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하였다. 수술의 간섭이 부드러운 광선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눈을 감